천주교 광주대교구 70주년 준비위 사무국장 김 계 홍 신부

"광주 가톨릭, 한국 민주화 구심점 이었다"

신자수 31만명… 70년만에 100배 늘어

이주민센터 건립 등 '나눔 실천' 박차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등을 위한 센터를 짓는 등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교회의 역할을 꾸준히 찾을 것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설립된 지 올해로 70년이 됐다. 고희(古稀)를 맞은 광주·전남의 천주교는 지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교구 설립 당시 3천여명이던 신자수는 2005년 말 현재 31만여명으로 100배 늘었고, 본당수는 7개에서 110개가 됐다.

이러한 외적 성장 외에 천주교는 일제시대와 6·25한국전쟁,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의 질곡을 헤쳐 오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웃고 울었다. 16일 광주시 북구 임동 광주대교구 내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설정 7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만난 사무국장 김계홍(47·세례명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에 천주교가 전파된 것은 19세기 후반. 주로 경기와 경상 지역에 분포했던 조선시대 천주교 신자들은 103년 동안 계속된 박해를 피해 전라도 지방으로 숨어들었다. 이 지역에 천주교가 자리잡게 된 배경이다. 당시 장성의 방장산, 나주의 금성산 일대에 교우촌을 형성해 신앙생활을 이어온 것이다.

처음으로 성당이 설립된 곳은 목포 산정동, 1897년의 일이다. 드뇌(1873~1947) 신부가 초대 주임 신부였다. 한국 신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터라 아일랜드 골롬반 선교회와 멕시코 과달루페 선교회의 신부들이 전남 각지의 성당에서 사목활동을 펼쳤다.

"이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광주대교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선교사 신부님들은 꿋꿋하게 지역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광주대교구 초대 교구장이던 아일랜드 출신 맥폴린(1889~1963) 신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준 적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을 박탈당해야 했고, 4대 교구장인 브랜난(1901~?) 신부는 산정동의 쿠삭(1901~?), 오브라이언(1918~?) 신부와 함께 북한으로 납치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시련을 겪는다. 7대 윤공희 대주교는 당시를 회상하며 스스로를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스쳐지나가는 한낱 제관이었다"고 깍아내렸지만, 정의평화위원회와 정의구현사제단의 활발한 활동은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었다.

"당시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주교의 활동이 더 부각된 것입니다. 5·18 비디오를 제작해 각지의 성당을 통해 보급했던 것이 좋은 예이지요."

신자들은 지난달 17일부터 70주년을 위한 100일 기도에 들어갔고, 교구에선 오는 5월27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평생교육원(옛 광주가톨릭대학교)에서 70주년 경축제를 열 예정이다.

김 신부는 "앞으로도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내적으로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 외적으로 지역사회와의 교감을 위해 꾸준히 나아갈 것"이라며 "70주년을 맞이해 '이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 늦어도 내년에는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앗! 호박 속에 콩나물이…

순천 가정집서 발견

호박에서 콩나물이 자라는 희한한 일이 순천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졌다. 〈사진〉

16일 순천시 조곡동 김은숙(34·주부)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부엌에서 늙은 호박 한 통을 잘랐다. 이 호박은 김씨가 지난해 구례군 산동면에서 가져온 것으로 겨우내 부엌 한쪽에 놔 두었다가 휴일을 맞아 호박죽을 끓어 먹으려고 꺼내 온 것.

누렇게 잘 익은 호박은 서너번 칼질을 하자 '쩍'소리와 함께 속내를 드러냈다. 하지만 호박속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가득했다. 콩나물이었다. 김씨는 "호박 속에서 콩나물이 자란 것은 생전 처음 봤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부동산임대업자 잠적 세입자 70여명 '피해'

박모(33·광주시 북구 동림동)씨는 지난 9일 집주인 고모(47·광주시 남구 주월동)씨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사업을 원만히 지탱하기 힘드니 주택의 근저당권을 승계하고, 소유권 이전을 속히 마치라"는 내용이었다.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거라며 공식적으로 '잠적'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2003년 3월 전세금 4천700만원을 주고 고씨 소유의 P아파트(24평)에 입주한 박씨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고씨가 농협 충효동 지점에 저당잡힌 2천200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한다. 하지만, 당장 목돈을 구하기 힘든데다 농협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경매에 부치겠다고 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박씨는 "소유권 이전을 하면 현재 시세가 6천만 원 정도인 아파트를 1천만 원이나 더 비싸게 사는 셈이 되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경매에 넘겨진다"며 "아파트를 비싼 값에 떠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인 고씨가 갑자기 잠적하면서 계획에 없던 아파트를 사야 할 처지에 있는 세입자들은 박씨를 포함 모두 29명. 농협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세입자들이 근저당 대출금 외에도, 고씨가 보증 없이 대출해간 3천만 원도 29명이 돈을 모아 갚으라고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고씨의 신용대출금까지 갚을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고씨가 5~6곳의 은행을 통해 받은 대출금은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120채에 이른다.

고씨로부터 소유권 이전 업무를 맡은 P법무사 관계자는 "고씨의 잠적 이유는 알 수 없다"며 "위임받은 70여 건의 아파트 가운데 60여 명의 세입자는 고씨의 대출금을 나눠 갚고 이전을 마쳤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서창 둑길' 나무심기 광주시청 직원들이 16일 오후 서구 벽진동 '서창 둑길'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이날 식목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400여 명이 참석하여 왕벚나무, 청단풍 등 2천260그루를 심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탤런트 이찬 불구속 송치

경찰, 이민영씨 폭행 혐의

탤런트 이찬·이민영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찬씨에 대해 상해 등 혐의를 적용,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찬씨는 임신 중인 이민영씨를 폭행해 유산시키고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와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민영씨 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찬씨가 이민영씨에게 여러 차례 물리력을 행사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관계자 30~40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 진술이 엇갈렸고 내부적으로 구속 의견을 정리했으나 구속 의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검찰 지휘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취업사기 기소

30대에 징역 6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1단독 송희호 판사는 16일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여모(37)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취업사기 정황이 두루 인정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씨는 2006년 5월6일께 모 커피숍에서 '기아차 고위직을 알고 있는데 소개비를 주면 취업시켜 주겠다'고 박모씨를 속여 같은 달 16일 100만원을 박씨로부터 송금받아 가로챈 등 2006년 7월5일까지 3차례에 걸쳐 3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꽃샘추위 '끝'

주말 광주 낮기온 포근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이 14.1도를 기록한 가운데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는 나들이 하기에 좋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 기상청은 이날 "주말인 17일과 18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기온이 최고 14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날씨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곳에 따라 오전중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 금요일까지 비 예보가 없어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요일인 21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된다는 '춘분'으로, 기상청은 더 이상의 꽃샘추위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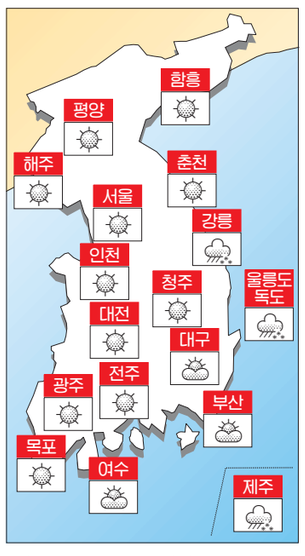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

포근한 나들이 길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3월 17일
(음 1월 28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조금	3~13℃
목 포	구름조금	4~11℃
여 수	구름많음	6~10℃
완 도	구름조금	5~13℃
구 례	구름많음	1~14℃
해 남	구름조금	2~13℃
장 흥	구름조금	2~13℃
고 흥	구름많음	4~12℃
순 천	구름조금	1~14℃
영 광	구름조금	2~11℃
진 도	구름조금	2~14℃
전 주	구름조금	2~12℃
남 원	구름많음	0~12℃
정 읍	구름조금	2~12℃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00:24 13:14 썰물 06:01 18:40
여 수 밀물 08:10 20:21 썰물 01:38 14:16

▲해뜸 06:42 ▲해짐 18:41 ▲달뜸 05:31 ▲달짐 16:3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날 씨						
최저/최고	1/13	1/12	2/13	3/14	3/15	5/07

의료법 개정반대 궐기대회 21일 의사 3천명 상경

광주·전남 진료공백 우려

오는 21일 서울에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대규모 궐기대회에 광주·전남지역 의료인 3천여명이 참석키로 해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회·대한치과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오는 21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 정부청사 앞에서 의료인 등 관계자 10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는 최근 각각 간담회를 열고 오는 21일 열릴 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했다.

광주시 의사회는 의사와 가족· 직원 등 모두 2천여 명이 이날 버스편으로 상경, 궐기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50여 병원은 응급실 운영과 당직 의사 근무를 통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750여 개인의원 중 절반 이상이 휴진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 의사회도 21일 궐기대회에 회원 1천750여명 중 절반 가량인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 의사회 관계자는 "진료 공백을 줄여 지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군 단위 권역별로 당직 의사를 두고, 응급실 운영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주 초등생 교사가 '왕따' 지시

학교장 "책임통감" 사과

나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왕따'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에게 오히려 폭언을 퍼부었다는 논란과 관련, 이 학교 교장이 사과했다.

이 학교 A교장은 16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왕따 사건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통해 "이번 일로 충격과 깊은 상처를 받았을 학생과 가족, 학부모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생의 어려움 호소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에 소홀한 담임과 교장의 지도력은 백번 사과를 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즉각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교육적으로 지도가 미흡한 데 대해 교직원 모두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생들을 세심히 살피고 각별한 관심을 쏟아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인천 유괴 초등생 산채로 물에 던져

지난 11일 유괴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박모(8)군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이 익사로 추정돼 박군이 유수지에 버려지기 전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박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입에 거품이 있어 박군이 유수지에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군을 유괴한 혐의로 검거된 이모(29)씨가 유괴 직후 박군의 음성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유수지에 빠뜨려 살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씨를 상대로 추궁 중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납치 당일인 11일 오후 11시 30분께 운전을 하던 중 뒷좌석에 있던 박군이 질식사한 것을 발견하고 12일 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유수지에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박군은 유수지에서 15일 오전 6시께 테이프로 손발이 묶인 채 빨간색 포댓자루에 들어 있는 채 경찰에 발견됐다.

이씨는 박군을 유괴한 뒤 포장용 테이프로 박군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은 다음 차량 뒷좌석에 태운 채 시흥, 부천 등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경찰 절도혐의 딸 연행에 "납치" 신고

쌍나팔

○…딸이 자신의 눈 앞에서 절도혐의로 연행되자, 이를 믿지 못한 아버지가 경찰에 "딸이 납치됐다"고 신고.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3)양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광주시 서구 광천동 A금은방에서 현금 72만 원과 귀금속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213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15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아버지(53)의 가게에서 경찰에 연행됐는데.

○…아버지는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데려갔지만, 혐의도 알려주지 않고 믿을 수 없어서 잠시 후 딸에게 휴대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112에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